

광주대, 일리노이대학에 장학생 파견



광주대(총장 김혁중·사진)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 미국 자매 대학인 웨스턴 일리노이대학에 어학연수 장학생 15명을 파견 한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서구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영어구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11번째이다. 오는 24일~8월1일까지 5주 동안 어학 연수를 받는 학생들은 미국 체류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웨스턴 일리노이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외국인 교육 전문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 녹동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유승근씨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B지구 녹동 라이온스클럽 제36대 회장에 유승근(60·승일용역 대표)씨가 취임했다.

유 회장은 “참여속에 희망 있는 봉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kwangju.co.kr

## 서석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오동옥씨



오동옥(46) 광주화장실문화 시민연대 대표가 20일 제35대 서석라이온스클럽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오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평생 서석라이온스 클럽의 전통을 계승하고 불우한 이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면로 드레스 50억에 팔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입은 의상을 내놓은 경매에서 면로를 세기의 섹시 아이콘으로 만들어 준 흰색 드레스가 최고 예상가 21억원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에서 오드리 헵번이 ‘마이 페어 레이디(1964)’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40억원, 메릴린 면로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1953)’에서 입었던 빨간 드레스는 13억원에 팔렸다. /연합뉴스

## 내방

▲이낙연(환경·영광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씨 ▲이진(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씨 ▲송태호(LH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씨

## “조오련 선수 도전 정신 계승무대 될 것”

## 땅끝 바다수영대회

## 박상대 추진위원장



“젊은이들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조오련 선수의 강인한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해 보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대 조오련배 땅끝 바다수영대회 추진위원장은 20일 제 2회 땅끝 바다수영대회를 앞두고 “괜한 것만 찾는 세상 탓인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상당수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으로 힘들어 하고 있지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땅끝 바다수영대회는 대한해협을 건너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 선수를 주

모하고 그의 강인한 정신을 잊기 위한 주모사업의 하나로, 오는 7월 23일부터 이틀간 그의 고향인 해남 땅끝 송호해변에서 열린다.

조오련 타계 1주기에 맞춰 지난해 첫 대회가 열린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조오련과 함께했던 바다수영 선수와 지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마련된다. 박 위원장은 고인의 중학교 선배로 그가 두 번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현재는 국내대회로 치러지고 있지만 조 선수의 진취적 정신을 잊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수영대회로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련은 지난 1952년 해남에서 태어나 지난 1970년 방콕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한국스포츠 수상 첫 아

시안 게임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의 물개’란 애칭을 얻었다.

그는 배영 100m와 평영 100m, 200m 등 세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무려 50차례나 한국기록을 깨어치웠고 협연에서 물러난 뒤에도 지난 1980년 8월 11일 사상 최초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가 하면, 2년 뒤 1982년엔 32km의 도내해협을 건너 화제를 모았다.

2008년에는 독도 33비퀴를 들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리는가 하면,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2010년 새황단을 추진하다 2009년 8월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한편, 땅끝 바다수영대회는 3.3km 개인전과 1200m 단체 팀레이스, 조등(4학년 이상)·중·고등부 및 연령별(20~60대 이상) 500m로 나눠 열린다. 참가비는 2만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전남도 제공

## 국립공원의 야생화

<43> 송방망이



‘송방망이’는 20~65cm 정도로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건조한 지역, 습한 지역을 거리지 않는다.

송방망이의 어린순은 이쁜 별나물로도 이용하지만, 국화과 식물로는 드물게 유독식물로 알려져 있다.

줄기에 흰 털로 덮여 있어 ‘송방망이’라 이름 붙여졌다.

지만, 흰 털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노인을 생각했는지 속명인 ‘세네시오’(Senecio)는 라틴어 ‘세넥스’(senex)에서 유래된 것으로 ‘노인’을 뜻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대총중 1회졸업 박종범 회장 초청 강연회



광주 대총중(교장 이명자)은 20일 1회 졸업생인 영산그룹 박종범(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회장을 초청,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

## 광주기독병원 감염관리 주간 손씻기 체험



광주기독병원(병원장 박병림)은 ‘작은 실천이 환자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5일 동안 올바른 손씻기 체험 등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광주천 정화활동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과장 김재규) 직원들은 최근 광주천 남광교~광주대교 구간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 암 투병 15살 소녀 음악인 재능기부로 가수의 꿈 이뤘어요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키운 15살 소녀가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로 앨범을 발매하며 꿈을 이뤄가고 있다.

20일 한국 메이크어위시 재단에 따르면 난소암 환자인 신민지(16)양이 노래를 부른 음원이 이날 ‘벅스’ 등 음악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음악프로듀서 성기영씨가 앨범 전체 프로듀싱과 함께 타이틀곡을 작곡하고 작곡가 이규원씨와 유태환씨가 각각 곡을 만들어 신곡에게 선물했다.

앨범 표지사진은 사진작가 권영호씨가 찍어줬고 음반레이블 ‘풀 뮤직’이 제작을 후원하는 등 앨범 전체가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만 들어졌다.

2009년 난소암 발병으로 투병 중인 신양은 지난해 초 메이크어위시재단에 소원을 접수했고 재단 측의 소개로 음악인들을 만나 1년 넘게 앨범을 준비해 왔다.

유명 이민자 출신 청업자는 AT&T·버라이즌의 알렉산

## 미국내 500대 기업 41%

## 이민자·이민자 자녀가 설립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미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41%가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PNAE)은 19일 ‘뉴아메리칸 포춘 500’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이민자가 설립한 기업이 전체의 18%인 90개사이고, 이민자의 자녀가 창업한 경우는 22.8%인 11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들이 설립한 기업은 모두 204개사로, 이는 500대 기업의 40.8%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명 이민자 출신 청업자는 AT&T·버라이즌의 알렉산



그래햄 벨 루퍼트 머독 스티브 잡스

더 그래햄 벨(스코틀랜드), 골드만삭스의 마커스 골드만(독일), 인텔의 앤드루 그로브(헝가리), 뉴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호주),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이민자 자녀 출신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시리아), 포드의 헨리 포드(아일랜드), 휴디포의 베니 마커스(러시아),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쿠바), 오라클의 레리 엘리슨(러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5867.

▲의성김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김환규) 정기 임원회의=28일(목) 오후 7시 소랑소랑(현대백화점 뒤) 062-522-6464.

향우회

▲제2회 보성을 향우회(회장 김선주) 정기총회=23일(목) 오후 6시 30분 흥백회관 062-228-3382.

모집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불소이 무용학원=발레·재즈·방송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 동창·동문회

▲제2회 성균관대학교 동문회=22일(수) 오후 7시 샤프팅(롯데아울렛 월드컵점 2층) 062-606-2990, 010-9408-7699.  
▲제2회 무안초교 50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23일(목) 오후 7시 소촌동 오리와 숲속 062-944-3379.  
▲광주석산고 총동문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25일(토) 오후 6시~26일(일) 담양온천리조트 062-527-6770~1.

##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정기총회=23일(목) 오후 7시 무등고시원 011-9615-

댄스 및 어여로비.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광주 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활동,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건강수지침 회원=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암보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키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정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

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 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활동,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협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답양지역 자활센터 참여자=답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금지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임은석씨 별세 현수(한전)·재균(박달나무한의원)씨 부친상=발인 2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진열씨 별세 명서·명화·명갑·미순·미애·미영씨 부친상=발인 2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